

지역 축제 잇따라 흥행... 올 가을 광주는 '꿀잼도시'

충장축제 성황...세계적 축제 목표 3회째 맞은 버스킹월드컵도 대박 김치축제 '흑백요리사' 셰프 초청 '늘 하던대로' 탈피해 '과감한 도전'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흥행을 거두면서 '노잼도시'로 불리던 광주가 '꿀잼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억의 충장축제를 비롯해 여러 축제가 '늘 하던대로'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면서 올 가을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유쾌한 도시가 될 조짐이다.

광주 동구는 최근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됐다. 20여년간 성장한 충장축제가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의 이목을 받으면서다. 축제협회는 2010년부터 7개 권역·인구별로 가장 우수한 도시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될 경우 세계축제도시 로고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축제도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충장축제는 국내에서도 20개 뿐인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열리는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예비축제', '현행·명예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로 단계를 나눠 각각 차등 지원한다. 명예 축제는 문체부로부터 재정지원을 10년간



'제9회 광주서창역새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시민들이 광주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 역새밭 길을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G-페스타 시즌2'로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린다.

▶관련기사 5면

김양배 기자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세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지원을 지속한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1129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된 것을 고려하면 충장축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축제로 도약한 것이다.

동구는 충장축제를 진정된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7080세대의 추억을 그

리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충장로 중심상가 외에도 5·18민주광장, 예술의 거리 등까지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충장축제는 상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가 지난해 충장축제 기간 전과 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축제기간 충장으로 전역과 지하상가, 천

번 인근, 예술의 거리 등의 소비매출이 평상시 대비 40.7% 증가했다. 충장로 1·2·3가의 경우 매출이 59% 증가했다.

충장축제와 함께 개최된 '제3회 광주버스킹월드컵'도 각광을 받았다. 3년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58개국 781팀이 예선에 접수하는 등 충장축제를 세계의 축제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광주의 가을축제는 계속된다. 18일과 19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제31회 광주김치축제'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진인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치오 페브리 셰프 등이 푸드쇼에 초청돼 주목 받고 있다.

셰프들은 광주 김치축제 경연대회에서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재해석해 새로운 요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흑백요리사에서 묵은지를 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듯 김치가 한식·중식·양식 등 세계 어떤 요리와도 어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관람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주시가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스타셰프들을 방송이 방영되기 전부터 섭외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과감한 도전과 선구적인 시각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김치축제는 세계에 김치를 소개하는 취지이기에 세계적 관심을 받는 흑백요리사 출연자 섭외에 노력했다"며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스타셰프 푸드쇼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5면

민현기 기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광주 첫 개최

21~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한·중·일 관계자 400명 참석

광주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우수시책 발굴과

상호 공유,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3개국이 매년 돌아가며 여는 행사로,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 개최다.

교류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야스다 미츠루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 등 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복합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회의는 지방정부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날인 21일에는 개회식과 광주시장 주재 환영만찬이 있고, 22일에는 본회의와 대한민국 시도지사 주재 만찬이 진행된다. 23~24일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비엔날레 등을 찾아 광주지역 산업과 문화를 체험한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수령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강기정 시장은 '복합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 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일 상생의 미래를 모색한

활성화 △스마트도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한중일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소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통해 포용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광주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노병기 기자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전남일보(jnilbo.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순신장군 순례길 걷다

다양한 기념품과 푸짐한 간식

EVENT 1 QR 사전접수 시 혜택
인수폴리머스트백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상업, 산업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여 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폴리머스트 백을 헤어드려요!

EVENT 2 행사 당일 무료 증정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방법은? 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이서 버킷햇 전원 증정!

EVENT 3 완주자들을 위한 간식 증정
결승점에 도착하시면 푸짐한 간식들을 드려요!
* 반드시 정수 따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시간 매주 오전 10시